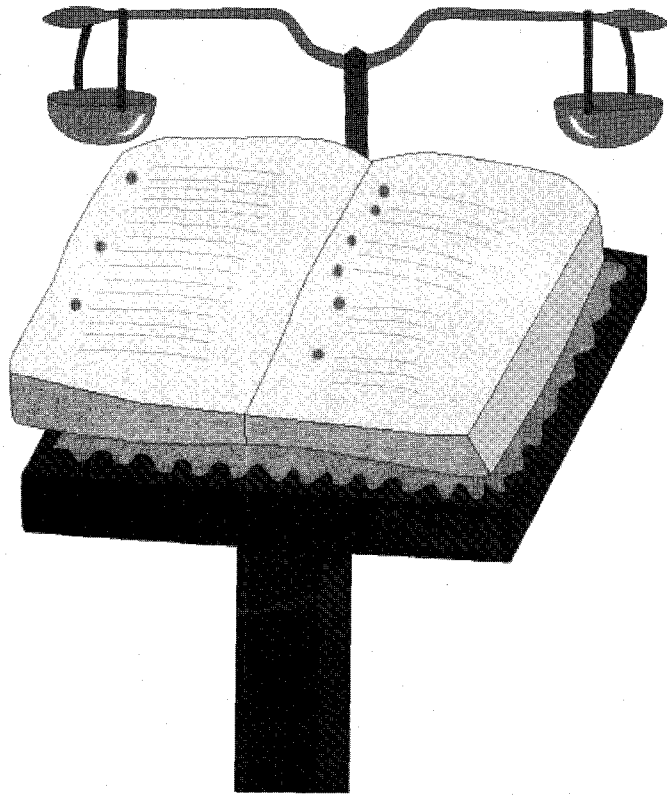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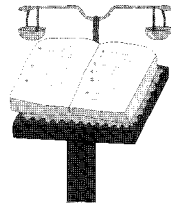
PL 기획특집 25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사법적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제조업체 등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간 전기제품 '안전21'은 PL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하여 관련 업체들이 PL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후 발생가능한 모든 피해사태에 적절한 예방책과 또 사후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주 -

- I. PL에서 착오의 의미
- II.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III)
- III. EU가맹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III)



PL에서 착오의 의미

글 · 남광우 전무이사 라이온미싱(주)

착오(error)란 착각에 의한 잘못이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인식(認識)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정의하여, 착류(錯謬) 혹은 오착(誤錯)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이 일정한 의사에 기(基)한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 착오가 있다면, 그 행위자는 법이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법상의 의사표시와 형법상의 고의에 관한 착오가 중요하다.

고의(故意)는 딴 뜻을 가지고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법률에서, 남에게 대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과실(過失)과 대칭된다.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 즉 죄를 저지른 뜻의 범의(犯意)와 통한다.

민법상, 의사표시에 있어서 내심의 의사 즉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의 내용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表意者)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 즉 심리유보나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착오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첫째 표시상의 착오로,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 하는 경우이다.

둘째 내용상의 착오로,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이다.

셋째 동기 즉 연유의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는 동기에 틀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민법은 착오의 태양(態樣)에 의하지 않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그 착오가 없으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객관적 중요성을 말한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을 참작하여 보통 일반인이 가져야 할 주의를 지나치게 결(缺)하였음을 말한다. 또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착오의 적용범위는 재산행위에 한하고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민법 제815조와 제88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행위 중에서도 행위의 외형에 신뢰하여 대량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법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착오의 범위가 배제되는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행위자가 인식한 바와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착오는 부지(不知: ignorance)와 오인(誤認: mistake)을 포함한다. 형법에서는 어떠한 착오가 있으면 고의(책임)을 조각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사실의 착오는 범죄사실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그 가운데서 착오가 객관의 성질에 관한 경우를 타격의 착오 즉 방법의 착오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에 관한 경우를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한다. 또, 사실의 착오는 착오가 동일한 구성요건의 범위 내의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이나, 아니면 상이한 구성요건 사이에 걸치느냐에 따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사실의 착오가 고의를 조각하느냐에 관하여,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인식한 바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체적 부합설이 있다. 그리고 법정의 구성요건의 범위 내에 있어서 인식과 사실이 부합되면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법정적 부합설 곧 구성요건적 부합설이 있다. 또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부합하면 족(足)하다고 하는 추상적 부합설이 있다.

타격(打撃)의 착오(錯誤)란 방법의 잘못으로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를 방법의 착오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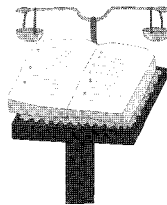
예컨대, 갑을 살해할 의사로서 갑을 향하여 권총을 발포한바 갑이 아니라 옆에 있던 을이 사살된 경우인데, 이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한다. 또는 갑집의 유리창을 깨뜨릴 의사로서 들을 던졌던바 들이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을에게 맞아 부상케 한 이른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이다.

그리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허용된다고 오신(誤信: misbelief)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가 있어도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도,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벌해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의 해석상은 책임설의 입장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종래의 학설에서는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근자에는 이 구별이 부정확하다고 하여, 사실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 법률적 착오를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상의 착오' 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해지고 있다.

구성요건적 착오(構成要件的錯誤)는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사실적(기술적) 요소이든 규범적(의미적) 요소이든 간에, 이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의 사실의 착오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금지(禁止)의 착오는 행위가 범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금지된다는 점에 관한 착오인데, 이러한 의미에서는 종래의 법률



의 착오와 같다.

형사소송법상,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비약적 상고(飛躍的上告) 이유가 된다. 법령적용의 착오라 함은 의율(擬律)의 착오라고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에 대한 실체법의 적용의 착오도 포함한다. 다만 사실인정에 과오가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이 달리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사실오인이라 한다.

사실오인(事實誤認)이란 법원의 증거의 채부(採否) 또는 그 평가를 그르쳐서 사실인정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인정이란

일정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거에 기(基)하여 확립하는 판단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오인은 그러한 판단작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이다.

사실오인은 어떠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또는 경험칙을 그르치는 것, 또는 증거의 선택을 그르치는 것, 증거의 불충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긴다.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항소이유로 된다. 또,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사자숙어(四字熟語)

절영(絶纓) : 관(冠)의 끈을 끊음. 관대한 은전(恩典)을 이룸.

[유래] 초(楚) 장왕(莊王)이 밤에 신하들과 잔치를 벌였는데, 마침 촛불이 꺼지자 한 미인의 옷소매를 당기는 사람이 있었다. 여자는 그 사람의 관끈을 끊고 왕에게 불을 밝혀 그 사람을 찾자고 했으나, 왕은 도리어 여러 신하에게 관끈을 모두 끊게 하였다. 훗날 진(晉)과 싸울 때 늘 왕의 앞에 나서서 적을 물리치는 이가 있어, 왕이 알아 보았더니, 전날 여자에게 관끈을 끊긴 그 사람이었다. <說苑>

사족(蛇足) : 뱀의 발이란 뜻으로, 쓸데없는 군일로 다 된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의 비유. 화사첨족(畫蛇添足)의 준말.

[유래] 초(楚)의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종들에게 술 한 대접을 주었더니, 여럿이 마시기에는 부족하고 한 사람이 마시기에는 많아, 뱀을 빨리 그리는 사람이 마시기로 내기를 했다. 한 종이 일른 뱀을 그리기 뒤 왼손으로 술대접을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뱀그림에 발까지 그려보이며 자랑했다. 그러자 다른 종이, 뱀에 무슨 발이 있는가 하면서 냉큼 술대접을 빼앗아 마셔 버렸다. 뱀 그림에 발을 그려 넣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 우화는, 전국(戰國)시대 초의 재상 소양(昭陽)이 위(魏)를 공격하여 점령하고는, 내친결음에 제(齊)까지 치려고 했을 때, 진(秦)의 진진(陳軫)이 소양을 찾아가서 쓸데없는 전쟁을 하지 말도록 만류하며 비유한 이야기이다. <戰國策>

와신상담(臥薪嘗膽) : 원수를 갚으려는 일념으로 모진 고생을 참고 견뎌, 또 성공하기 위하여 고된 단련으로 힘을 기르며 애씀을 이룸.

[유래] 춘추(春秋)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는 월왕(越王) 구천(句踐)에게 패하여 죽은 아버지 합려(闔閭)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밤이면 쉼 위에서 자고 아침마다 복수를 맹세하면서 힘을 길렀다. 그리하여 3년 뒤, 부차는 월군을 쳐부수고 회계산(會稽山)에서 구천을 사로잡았다. 구천은 짐승 쓸개를 핥으며 보복을 다짐했다. 그러기를 12년, 구천은 부차의 항복을 받았으며, 부차는 자살했다. <史記>